

< 여기서 뛰어라! - 지금 이곳의 젊은 미술 >

8. 동시대의 사진작업-잡종적인 연계(connectivity)

사진은 분명 객관적 세계를 인증한다. 해서 사진은 오랫동안 현실 인식의 탁월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한편 발터 벤야민은 사진을 일종의 텍스트로 간주했다. 실재계를 찍은 사진 역시 상징계의 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오늘날 사진은 현실에 대한 인식에 적합하다는 사실의 회의에 봉착해 상징계의 질서가 아닌 상상계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사진이 더 이상 객관적 실체를 증거 하는 수단이지도 않게 되었다. 오늘날 사진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의 화학적 증거'가 아니다. 사진은 이제 실재와 가상 사이에 걸쳐있거나 그 둘이 경계 없이 뒤섞인다. 이른바 팩트와 픽션이 뒤섞인 '팩션' 사진이 대세라고들 한다. 최근 젊은 작가들은 보는 세계에 만족치 못하고 그 안에 환상이나 가상을 삽입한다. 보고 싶은 것을 드러내거나 현상 이면에 잠복한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부단히 유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연출과 각색을 통해 풍경과 사물을 낯선 것으로 치환하는 것이다.

라캉은 상상계로 표상될 수도 없고 상징계로 의미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말한다. 이른바 그가 '실재계'라 부른 그것은 이미지로 표상하거나 텍스트로 의미하는 순간 더 이상 실재가 아니게 된다. 이미지는 텍스트든 자신을 가리키는 기호를 미끄러지게 하면서, 그리하여 상상계로도 상징계로도 편입되기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남는 것을 말한다. 그 실재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때때로 트라우마가 되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모호하고 난해하며 도저히 알 수 없는 삶, 우리네 인생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최근 젊은 작가들의 사진작업은 경계를 뛰어넘어 살고 생각하는 데서 진행된다. 경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숙고함으로써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인위적인 경계를 극복하는 일이다. 이른바 하이브리드적, 잡종적 삶과 생각이 작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레 현실과 비현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의식과 무의식, 생과 꿈 등이 작업의 주된 테마가 되고 있다. 아울러 조각과 회화, 사진과 입체 등등이 혼성적으로 직조되어 있다. 보는 이에게 현실과 비현실, 실재와 허구, 사실과 이미지 사이를 희롱하는 연출에 기인한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사는 이들이 바로 작가들이다. 그것은 일종의 영성과 관계가 깊어 보인다.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힘,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눈, 자신만의 내밀한 경험과 시각적, 심리적 체험을 가시적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능력 등이 그렇다. 상당수 작가들은 꿈의 장면을 현실에 부러놓는 이들이자 현실과 꿈의 공간을 가로질러 가고자 하는 이들이다. 그것이 사실 미술, 이미지의 힘이고 매력이다.

젊은 작가들의 작업은 이른바 '크로싱 장르'이자 다분히 하이브리드적이다. 조각과 회화, 사진이라는 세 장르가 긴밀히 결합되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고 은폐하다가 슬쩍 공모관계를 교묘하게 드러낸다.

작가가 그 동안 다루었던 꿈과 무의식의 풍경을 새삼 회화와 입체로 살려내고 다시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선보인 것이다.

예를 들어 유현미의 작업은 리얼리티가 있는 구체적인 사물과 현실계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사물의 세계를 꿈과 시적으로 연출한다.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사물들을 석고봉대로 고정시켜 조각된 사물을 만들고 그것들을 인위적 공간(작가의 스튜디오)에 포함시켜 한 장의 그림, 사진으로 꾸며낸다. 젯소와 젤 미디움 그리고 석고봉대 등을 사용해 사물/의사사물을 만들었는데 사실 조각에서는 오브제가 전부이지만 이를 다시 회화로 전향시킨 것이다. 사물(오브제)에서 조각으로, 회화로 다시 사진으로, 결과적으로 그 모두가 통합된 형국인 셈이다. 이때 사물의 표면을 새롭게 연출하는 한편 붓 자국으로 인한 마티에르를 적극 부여한다. 일종의 회화적 제스처다. 그러니까 작가는 전통적인 조각과 회화의 과정 자체를 실현하고 모방하면서 그렇게 연출된 이미지를 사진으로 다시 재현하고 있다. 그로 인해 조각과 회화, 사진이라는 장르의 차이, 경계가 어지럽게 섞이고 결합해서 다소 기이한 장르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사물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부풀어 오르고 연이어 붙어있고 그 모두가 덮여있다. 개별적인 세계, 사물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자 개체로 자존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져있다는 인식이다. 혼돈과 미분화, 순환적 사유는 다분히 여성적이지 동양적 사유의 한 편린인 동시에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을 겨냥하고 모든 장르를 월경하고자 하는 작가의 전략 아래 나온다. 작가는 미라같이 사물을 감싼다. 그 미라 역시 일종의 지표다. 작가는 미라처럼 사물을 감싸고 다시 이를 사진의 지표적 속성으로 포장했다. 찰스 퍼스의 대상과 그 재현기호의 관계에 따른 기호학적 분류에 따르면, 전통적인 사진은 지표 index 이다. 그것은 발자국이나 지문처럼 물리적 접촉에 의해 생겨난 기호다. 사진에서 물리적 접촉에 관여하는 요소는 사물이 발사하는 반사광이다. 이 반사광을 통해 사진원판과 재현대상은 물리적으로 접촉된다. 반사광에 의한 물리적 접촉이 없다면 사진이 재현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표로서의 사진은 재현대상이 감광판의 시계 視界 속에 있었음을 혹은 감광판에 직접 접촉했음을 증언한다. 따라서 지표는 생성된 기호대상의 실존을 증명한다. 그때 거기에 재현대상이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물을 미라화하고 회화적으로 연출한 동시에 공간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조율된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이 작품은 실재와 환영의 간극이 여전히 예술의 본질적 정체임을 일러준다. 그래서 보는 이들이 이 간극을 보고 즐기고 발견하고 해석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유현미의 작업은 그림을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실제 삼차원의 공간과 사물을 찍은 것이고 사진이기는 하지만 그 사진에 찍힌 피사체와 사진은 환영이 된다. 유현미의 사진은 우리 눈의 그 같은 속성을 끌어들이고 그 환영성을 길어 올리면서 동시에 각 장르들의 혼성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 보인다. 따라서 그것은 기존의 장르개념에서 벗어나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창조성'으로 이어진다. 서로 다른 장르와 상황들이 만나서 창조적인 이미지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유현미의 근작이다. 그래서 보는 이들은 '사물 자체-조각-회화-사진의 영역 사이'를 횡단하고 거닐고 헤매면서 상상력과 깨달음, 그렇게 만나는 환영의 장면을 즐기도록 권유한다. 여기서 관람자는 단순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작품 표면으로 호명되어 마치 퍼즐조각을 맞추거나 숨은 그림을 찾는 식으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성을 부여 받는다.